



긴 _____ 호흡,

정교한 언어의 구축물로 이야기해야 할 것들

조우석 중앙일보 출판팀장

6.7년전 썬일까? 오디오 잡지 <하이파이 저널>의 청탁으로 그런 제목의 글을 꽤나 길게 썼다. '피아노 음악의 판테온(萬神殿)을 지키는 청지기.' 내가 바로 그 청지기란 얘기다. 제법 멋을 부린 그런 제목 아래 내가 오랫동안 즐겨온 피아노 음악의 매력을 프란츠 리스트 이후의 피아노 음악 계보와 함께 펼쳐 보인 적이 있다. 거의 1백 명에 가까운 위대한 피아니스트들의 이름과 그들 연주를 서술했지만, 그중 한 명으로 유라 굴라(1895~1980)의 이름을 빼놓을 수 없었다. 글을 쓰는 지금도 영국 '넘버스' 레이블로 나온 그녀의 바흐-부조니 음악을 마치 그가 옆에서 연주해 주는 듯한 정신 없이 큰 볼륨으로 틀어놓고 있지만, 확실히 굴라의 음악은 지독한 그 무엇이 있다. 표면이 반들거리는, 하지만 '음악에 깃든 아우라'가 약한 요즘 피아니스트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함, 그리고 비극적인 맛의 장려함이 있다. 아마도 신산한 삶의 굴곡이 그녀 음악에 특유의 정조를 연출하는 것일 게다. 그것은 찬연한 테크닉의 마우리치우 폴리니이라도 족달불급의 격조이고, 내가 근대 음악 최고봉으로 치는 러시아의 사뮈엘 파인버그의 피아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종류의 음악성이다. 젊었을 적의 굴라는 작곡가 스트라빈스키나 포르코피에프 등과 교류했던 큰 이름. 문체는 2차대전 등의 격변 속에 연주생활이 끊기며 거의 완전하게 잊혀진 채 중국 상해 등지에서 숨어 살았던 곡절 속의 삶이 음악에 묻어나오는 것이다.

삶이 맛맛하다고 느낄 무렵이면 그런 음악을 들곤 하지만, 1년 반 전에 마음산책에서 나온 책 《예술가로 산다는 것》을 나는 간혹 뒤적이곤 한다. 일간지의 짧은 리뷰 속에 제대로 소화 못했던, 그래서 더욱 마음 한켠에 남아 있는 화가 10명의 삶을 반추하고 싶어서다. 다소 물기가 흥건하지만, 안정된 묘사능력을 인정할 만한 박영택의 글과 시선을 통해 만나는 작가들은 이 바람난 시대, 부박한 세월을 저만치 비켜서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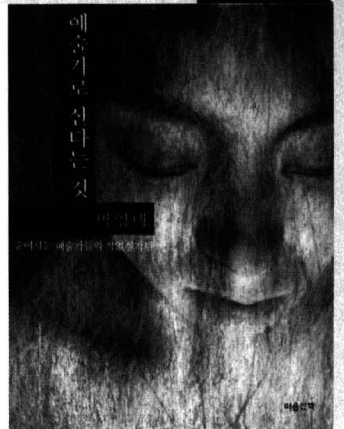
한데 그 중 내 마음에 남아있는 두 사람의 작가가 김근태와 김명숙이다. 김근태의 경우 글 제목부터 예사롭지않은 '절대고독-경주작업실에서' 편에 실려 있다. 경주 근교 "궁궐이 절벽처럼 둘러쳐진, 마치 이 세상의 끝 같은" 곳이 김근태의 작업실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이 작업실 풍경과 그의 작업 이념은 이렇게 인상적으로 설명된다.

“세상의 모서리에서 겨우 버티나가는 지상의 방 한칸, 그 곳에는 어떤 절박과 극한이 몸을 쉬고

1년반 전에 마음산책에서 나온 책 《예술가로 산다는 것》을 나는 간혹 뒤적이곤 한다.

일간지의 짧은 리뷰 속에 제대로 소화못했던.

그래서 더욱 마음 한켠에 남아 있는 화가 10명의 삶을 반추하고 싶어서다.



《예술가로 산다는 것》

박영택 지음 | 김홍희 사진 |

마음산책 | 208쪽 | 값 15,000원

있다.”(37쪽) “볼과 1.2센티미터를 그리고 칠하는 데 몇날 며칠을 고민한다는 그는 냄새와 향기, 정말로 맑은 그림, 영혼을 뒤흔드는 그림을 그리려 한다. 그가 그렇게 감동을 받았던 권진규의 조각 같은 그림을 원하는 것이다.”(43쪽)

앞에서 굴라의 피아니즘을 언급했지만, 좋은 예술 혹은 진정성을 담보로 한 예술은 이런 ‘벼랑 끝 삶’에서 가능한 것인지 모른다. 분명한 것은 유행과 쓸림의 구조를 특징으로 하는 한국사회는 이런 ‘비켜선 이들’이 곳곳에 있기에 균형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혼과 육체를 저당잡힌 단신 광대-김명숙 청주 작업실에서’의 분위기는 더욱 지독하다. 시골의 폐교 교실에서 작업하는 그의 작업 환경도 그렇지만, 책에 수록된 김홍희의 훌륭한 사진들이 김명숙이란 작가의 분위기를 더할 나위없이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열 말이 필요없다. 박영택의 말을 그대로 빌면 김명숙은 이런 작가다.

‘세속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폐와 진지함 속에 파리를 튼, 기묘한 심리의 세계를 지닌 작가’ ‘절망과 불안, 상심과 불행 속에서 그녀는 그림만을 구원으로 삼고 진력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자각 속에 수시로 빠져드는, 그러나 그림 조차 없다면 생을 지탱할 하등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154쪽)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레귤러한 지면으로 자리잡은 지 꽤 되는 일간지 서평지면이지만, 지금의 문법으론 한계가 있다고. 따라서 보다 여유 있는 호흡을 가지고(필요한 리뷰 기간 확보는 물론, 기사 꼭지 수를 줄이더라도 기사의 길이는 훨씬 긴 쪽으로) 텍스트를 만져야 하며, 리뷰어의 해석안도 충분히 살아 있어야 한다. 문장 역시 지금의 저널리시틱한 틀 속의 짧은 언어들보다 훨씬 정교하고 아름다워야 할 것은 두말할 것도 없다.

만일 그러했을 경우 1년 반 전 《예술가로 산다는 것》은 보다 효과적으로 내가 근무하는 신문의 지면에 실렸을 것이다. 그 때 비로소 마르쿠제가 말했던 ‘위대한 거부’를 이 땅에서 실천하고 있는 작가들의 삶의 성격도 분명해졌을 것이다. 또한 이런 책을 성실하게 저술한 미술평론가 박영택 작업의 무게도 제대로 전달했을 것이다. 그런 작업에서 적이 미진했던 이 책을 기회에 다시 읽어본 이유는 그 때문이다. **◆**